

미국의 낙태 이슈와 2022년 중간선거*

이 소 영**

•요 약•

이 연구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의 예상 밖 결과에 낙태 이슈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낙태 이슈가 어떻게 정치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정치화된 낙태 이슈가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탐구하고,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경합주 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유권자의 복합적 정체성과 결합해 있는 낙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여성과 젊은층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동원하고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합주에서의 민주당 선전에는 낙태 이슈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슈 전략과 관련하여 공화당은 낙태 이슈를 뒤로 하고 회고적 이슈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전략에만 의존함으로써 기대에 못 미치는 선거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주제어 : 2022 미국 중간선거, 낙태 이슈, 연방대법원 낙태 판결, 2022 경합주 선거

I. 서론

공화당이 크게 이길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선거에서 9석을 잃어 213석 대 222석으로 공화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줬지만 기대 밖으로 선전했으며, 상원선거에서도 치열한 접전 끝에 51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을 얻어 49석을 얻는 데 그친 공화당의 양원 장악을 막아냈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

* 이 논문은 2020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임.

** 대구대학교

간평가적인 성격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집권당에 매우 불리한 선거이다. 평균적으로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 26석, 상원 4석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 초중반 대를 넘기지 못했던 경우에 집권당은 매우 큰 패배를 경험해 왔다.¹⁾

2022년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맞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대 초중반을 밀돌았을 뿐 아니라, 선거구 재획정 및 의원직 은퇴로 인한 공석 등이 공화당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특히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다른 이슈들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선거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상원의 승리와 함께 크게 선전한 선거가 되었다.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이 민주당 선전의 이면에는 낙태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던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서 49년 전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고 여성의 임신 중단이 헌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개별 주들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미국 전역에서 이 판결에 대한 찬반 시위와 논쟁이 불붙었다. 이 판결은 무엇보다 여성과 젊은층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민주당 후보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경합지역에서 중요한 투표 선택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래 미국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되어 온 낙태 이슈는 이후 우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보수주의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 사회 이념적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처럼 투표 선택의 핵심 요인이 될 정도로 낙태 이슈가 큰 역할을 한 선거는 거의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낙태 문제를 중요시 하였다.

이 연구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가 어떻게 후보자 선택의 핵심 요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낙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든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간 낙태 이슈

1) 2006년 부시 집권기 공화당은 하원에서 30석을 잃었고, 2010년 오바마 집권기 민주당은 하원 63석을, 2018년 트럼프 집권기 공화당은 하원 40석을 잃은 바 있다.

가 어떻게 정치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온 쟁점이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어떻게 폭발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낙태 이슈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인들이 낙태 이슈를 중심으로 어떠한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서 낙태 이슈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구조가 2022년 중간선거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탐구해 보고, 마지막으로 경합주들에서 낙태 이슈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미국의 주요 낙태 관련 판결과 로 대 웨이드 판결 무력화

1. 미국의 주요 낙태 판결²⁾

1)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1973)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쓰는 텍사스주의 여성이 주의 규정 때문에 낙태시술을 받을 수 없자 1970년 3월 달라스 지방검찰관 웨이드(Wad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이 수정헌법 14조의 사생활 권리에 포함되는 근본적인 권리이므로 주 정부가 이에 대한 개입이나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낙태권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를 규제해야 하는 주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권리라고 밝히고, 임신의 전 기간을 3분기로 나누어 낙태가 허용되는 시기와 제한되는 시기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신 1분기는 여성의 독자적 판단으로 낙태가 가능하고, 2분기는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할 때만 낙태가 가능하며, 마지막 3분기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자적으로 생존가능하므로 주 정부가 낙태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 결정이 근본적 권리임을 규정하여 주 정부의 일방적 개입을 제한한 첫 번째 판결로서, 이 판결 이후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연방 및 주의 법률들이 폐지되면서 낙태권이 미국 정치의 핵심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이 판결 이후 생명우선(pro-life)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2) JUSTIA, US Supreme Court,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 나달숙, “미국에서의 낙태에 관한 법적 논쟁,”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2008; 그 외 Wikipedia, Embryo Project Encyclopedia(embryo.asu.edu) 등 참조

2) 웹스터 대 출산보건서비스(*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1989)

1986년 미주리주 의회가 통과시킨 주법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수태 시부터 시작되며 태아의 생명과 건강 및 복지는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낙태를 위해 주의 기금이나 시설 및 주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 법에 대해 미주리 ‘출산보건서비스’가 주 법무장관인 웹스터(Webster)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5대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미주리 낙태법의 규정이 여성의 낙태권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낙태권의 축소를 가지고 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낙태 이슈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고, 이듬해 실시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3)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스(*Planned Parenthood v. Casey*, 1992)

펜실베이니아 ‘가족계획연맹’이 1982년의 펜실베이니아주 낙태규제법에 대해 주지사였던 케이스(Case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5대4로 위헌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태아 생존가능 기준(임신 28주)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엄격한 3분기법 기준 대신에 ‘부당한 부담(undue burden)’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임신 24주 이내의 생존 능력이 없는 태아에 대한 낙태를 규제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법은 낙태선택권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이 판결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낙태권을 재확정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전국 단위의 동일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개별 주 단위에서 낙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낙태권의 제한을 가지고 온 판결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4) 전여성보건 대 헬러스테트(*Whole Woman's Health v. Hellerstedt*, 2016)

2013년 텍사스주 의회가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시술 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하자 ‘전여성보건’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법에 대해 5대4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의무조항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접근에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낙태 제한을 위한 규제들은 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받는 혜택이 부담보다 더 클 때만 합헌적이라고 보았다. 2010년 이후 미국의 각 주에서는 낙태시술 기관을 규제함으로써 낙태를 제한하고자 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

었는데,³⁾ 이 판결 후 유사한 낙태 규제를 시행하고자 했던 주들의 시도가 좌절되었고, 많은 주들에서 유사한 법률이 폐지되었다.⁴⁾

2. 로 대 웨이드 판결 무력화

1) 로 대 웨이드 판결 무력화 과정

낙태 합법화 이슈는 특히 트럼프 시대에 미국 정치의 핵심적 논쟁으로 부상하였다. 2016년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클린턴과 트럼프는 낙태 이슈에 대해 강하게 부딪혔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생명우선(pro-life) 대법관을 임명할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로 대 웨이드는 폐기될 것이라고 단언하였고,⁵⁾ 실제로 낙태에 강하게 반대하는 보수 대법관을 임명하였다. 2018년 7월에는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판사를 지명하였고, 2020년에는 세상을 떠난 진보 성향 루스 긴즈버그(Ruth Ginsburg) 대법관 후임으로 강성 낙태반대론자인 에이미 배럿(Amy Barrett)을 지명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절대 우위의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 시기 개별 주들에서 낙태제한을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19년 5월 앨라배마주에서는 성폭행 피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시술 의사를 최고 99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되어 낙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법은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알려졌다.⁶⁾ 비슷한 의도로 많은 주들에서 낙태금지 법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2021년 5월에는 텍사스주 주지사가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Heartbeat Act)’에 서명하였다. 이 법으로 텍사스주에서는 사실상 낙태가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 법은 시술의사 뿐 아니라 택시기사 등 낙태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개인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3) Andaya, Elise, “I’M BUILDING A WALL AROUND MY UERUS”: Abortion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Othering in Trump’s America,” *Cultural Anthropology*, vol. 34, Issue 1, p.11.

4) Planned Parenthood <https://www.plannedparenthoodaction.org/issues/abortion/roe-v-wade/whole-womans-health-v-hellerstedt>

5) Carmon, Irin, “2016 Debate: On Abortion, Trump and Clinton Give Passionate Answers,” *NBC News*, Oct. 21, 2016.

6) Elliot, Debbie and Laurel Wamsley, “Alabama Governonr Signs Abortion Ban Into Law,” *NPR News*, May 14, 2019.

7) Najmabadi, Shannon, “Gov. Greg Abbott signs into law one of nation’s strictest abortion measures,

뒤집은 이 법이 시행되자 연방 법무부는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즉각 제기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⁸⁾ 이후 여러 주들에서 유사한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동시에 낙태제한법 철회를 위한 시위 또한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2)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2022)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낙태에 관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다. 2018년부터 시행된 미시시피 주법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로 및 케이지 판결에서 제시한 낙태 금지 시기보다 훨씬 전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해 낙태시술 기관인 '잭슨 여성보건기구'가 주 보건담당관인 돕스(Dobbs)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또한 합헌 의견을 제시한 6명 중 로버츠(Roberts) 대법원장이 빠진 5명의 의견으로 수정헌법 14조가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개별 주들은 낙태를 규제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⁹⁾ 이 판결에 의해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약 50년간 이어온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준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¹⁰⁾

돕스 판결은 텍사스 심장박동법과 더불어 미국정치와 사회를 찬반 양편으로 갈라 수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그 결과, 낙태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고, 여론 동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판결 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57%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며, 특히 43%는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찬성 여론은 41%(강한 찬성 25%)에 그쳤다.¹¹⁾ <그림 1>에서는 낙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찬반 비율의 격차가 최근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낙태 합법화를 원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낙태

banning procedure as early as six weeks into a pregnancy,” The Texas Tribune, May 1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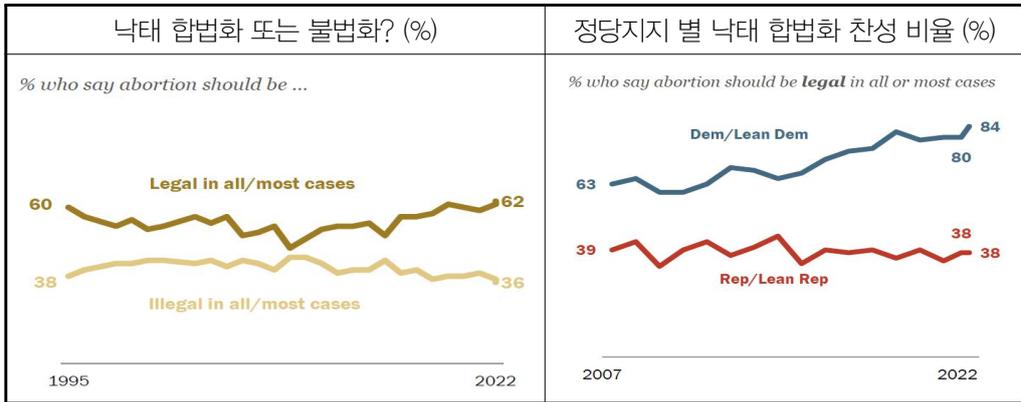
8) 연합뉴스, “미 대법 “텍사스 낙태제한법 시행 유지”...바이든 “깊은 우려”, 2021.12.11.

9)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97/19-1392/>; de Vogue, Ariane, Tierney Sneed, Chandelis Duster and Devan Cole,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CNN, June 24, 2022.

10) *Ibid.*

11) Blazina, Carrie, “Key Facts about the abortion debate in America,” Pew Research Center, July 15, 2022.

합법화에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율은 15년 전에 비해 21%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최근 미국의 낙태 제한 움직임이 낙태 합법화를 원하는 유권자들,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처: Pew Research Center, July 15, 2022.¹²⁾

〈그림 1〉 낙태에 대한 여론 변화 추이

Ⅲ. 낙태 이슈와 미국 정치

1. 낙태 이슈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미국인의 낙태에 대한 태도가 정당에 따라 배열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1980년대 기독교 우파와 보수적 가톨릭교도들이 낙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양 정당의 입장 차가 커지자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 이슈에 대한 명확한 균열이 일어났다. 낙태에 대한 엘리트 차원의 양극화가 대중 차원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쟁점 이슈가 정당의 정책 입장에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고 결국 정당체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이슈진화이론¹³⁾에 근거해서 낙태 이슈를 분석한 아담스(Adams)는 1980년대 이후 낙태에 대해 양당 의원들이 명확히 다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민주당은 선택우선

12) *Ibid.*

13) Carmines, Edward G. and James A. Stimson, *Issue Evolution: Rac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ro-choice) 정당으로, 공화당은 생명우선(pro-life)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대중 차원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¹⁴⁾ 이슈진화론을 주창한 카민스(Carmines) 등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시작된 낙태 이슈를 둘러싼 정당 엘리트의 양극화는 1980년대 정당 활동가들의 양극화로 나타났고,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대중 차원의 양극화로 나타나게 되었다.¹⁵⁾

에브라모위츠와 선더스(Abramowitz and Saunders)는 1980년 대선에서 낙태에 대한 규제를 약속한 레이건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명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에 기반하여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양당 지지자들 간에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⁶⁾

한편에서는 경험적 분석에 근거하여 미국인들의 실제 양극화 수준은 언급되는 정도보다 약하다는 피오리나(Fiorina) 등의 의견도 있지만,¹⁷⁾ 미국 대중이 낙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여러 이슈에 대해 강한 정파적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피오리나 등의 주장에 대해 에브라모위츠와 선더스는 1990년대 이후 미국 대중은 낙태 이슈를 포함한 여러 이슈에 대해 정당 지지, 거주하는 주, 그리고 종교의 유무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어 대중 차원에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고착되었다고 반박한다.¹⁸⁾ 디마지오(DiMaggio) 등은 미국인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입장이 명확히 나뉘어지기 전에도 낙태에 대한 태도는 정당에 따라 이미 나뉘어져 양극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⁹⁾

14) Adams, Greg D., "Abortion: Evidence of an Issue Evolu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3, 1997, pp. 718-737.

15) Carmines, Edward G., Jessica C. Gerrity and Michael W. Wagner, "How Abortion Became a Partisan Issue?: Media Coverage of the Interest Group-Political Party Connection," *Politics & Policy*, vol. 38, no. 6, 2010, p. 1137.

16)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Ideological Realignment in the U.S. Electorate," *Journal of Politics*, vol. 60, no. 3, 1998, pp. 634-652.

17)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Second Edition, Pearson Longman, 2006;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Misconceptions and misreadings,"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2, 2008; Fiorina, Morris, P., *Unstable Majorities: Polarization, Party Sorting, and Political Stalemate*.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ress, 2017.

18)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Is Polarization a Myth?"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2, 2008, pp.542-555.

19) DiMaggio, Paul, John Evans and Bethany Bryson, "Have Americans' Social Attitudes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2, no. 3, 1996, pp.690-755.

2. 낙태 이슈의 복합적 정체성

낙태 이슈는 정당정체성과 결합하여 정파적 태도를 형성 또는 강화하면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낙태 이슈는 정파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이슈이다. 특히 종교, 젠더, 이념 등은 정당정체성 외 낙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다양한 사회적, 이념적 정체성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점은 낙태 이슈를 단순히 공화-민주 양당의 정파적 라인으로만 설명하기 힘든 이유가 된다.

헌터(Hunter)는 미국사회에 도덕적 진리에 대한 관점이 다른 두 개의 그룹 사이에 제도와 시스템을 둘러싼 ‘문화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²⁰⁾ 헌터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는 도덕성에 대한 비전과 가치에 있어 양 집단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협과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다.²¹⁾ 도덕성이나 가치 갈등의 관점에서 종교는 문화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호프먼과 밀러(Hoffman and Miller)는 종교 집단 간에 보수-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명확히 존재하며, 로 판결 이후 20여 년간 종교적 정체성에 따라 미국인의 낙태에 대한 입장 차가 매우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²²⁾ 애브라모위츠와 선더스도 종교적 정체성과 종교의 유무가 문화적 쟁점에 대한 태도의 양극화로 직결된다고 보았다.²³⁾

캐슬과 스텝(Castle and Stepp)의 최근 연구에서도 낙태와 같은 문화적 이슈의 양극화에는 여전히 종교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²⁴⁾ 200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표된 116개의 낙태 이슈 관련 논문을 리뷰한 아담치크(Adamczyk) 등 또한 이 15년간 미국인의 낙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변수는 종교라고 주장한다.²⁵⁾ 특히, 낙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종교의 영향은 인종 집단에 따라 달리 나

20) Hunter, James Davison,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1.

21) Hunter, James Davison, “Reflections on Culture Wars Hypothesis,” in *The American Culture Wars*, edited by J. L. Nolan, Jr.,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6, pp. 243-253, Ted Mouw and Michael E. Sobel, “Culture Wars and Opinion Polarization: The Case of Abor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6, no. 4, 2001, p.916에서 재인용.

22) Hoffman, John P. and Alan S. Miller,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Among Religious Groups: Convergence and Divergence over Tim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36, 1997, pp.52-70.

23) Abramowitz and Saunders, 2008, *op. cit.*

24) Castle, Jeremiah J. and Kyla K. Stepp, “Partisanship, Religion, and Issu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 Reassessment,” *Political Behavior*, vol. 43, 2021.

25) Adamczyk, Amy, Chynrye Kim and Leevia Dillon, “Examining Public Opinion about Abortion: A Mixed Methods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ver the Last 15 Years,” *Sociological Inquiry*, vol. 90, no. 4, 2020, pp.920-954.

타나고 있는데,²⁶⁾ 에반스(Evans)는 1972년부터 1998년까지 주류 기독교 집단과 기독교 우파 집단 간 차이와 흑인 기독교인들과 가톨릭 및 백인 기독교 우파 간의 차이가 점차 커져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²⁷⁾

다음으로, 젠더 또한 낙태에 대한 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기존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낙태에 대해 더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낙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녀 간 주목할 만한 차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집단 내부의 동질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다. 후트(Hout)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이 있는 여성은 직업이 없는 여성에 비해, 그리고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낙태 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후트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직후에 여성들 사이에서 낙태에 대한 입장의 균열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이념에 따라 찬반이 나뉘면서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었다고 말한다. 정치적으로 조직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정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주의 여성들은 보수주의 남성보다 낙태에 훨씬 강하게 반대하고, 자유주의 여성들은 자유주의 남성보다 낙태에 훨씬 강하게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²⁸⁾

마지막으로, 낙태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미국인들이 낙태 이슈에 대해 이념적으로 나뉘게 되면서부터이다. 후트는 1974년 이래 남녀 모두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가 크게 차이 나기 시작했으며, ‘웹스터 대 미주리 출산보건서비스’ 판결이 있었던 1989년 이후부터 1992년 사이에 그 차이는 특히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⁹⁾ 후트에 의하면, 1990년대까지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서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간 차이보다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의 차이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후트 등의 2022년 연구는 최근에 미국인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는 1970년대에 비해 훨씬 더 이념적 정체성에 따라 배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⁰⁾

요약하자면, 기존 연구들은 낙태 이슈가 정당정체성과 결합하여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낙태에 대한 태도는 정당정체성

26) Bartkowski, John P., Aida I. Ramos-Wada, Chris G. Ellison and Gabriel A. Acevedo, “Faith, Race-Ethnicity, and Public Policy Preferences: Religious Schemas and Abortion Attitudes among US Latino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51, no. 2, 2012, pp.343-358.

27) Evans, John H., “Polarization in Abortion Attitudes in U.S. Religious Traditions, 1972~1998,” *Sociological Forum*, no. 17, 2002, pp.392-422.

28) *Ibid.* pp.3-34.

29) *Ibid.* p.13.

30) Hout, Michael, Stuart Perrett and Sarah K. Cowan, “Stasis and Sorting of Americans’ Abortion Opinions: Political Polarization Added to Religious and Other Differences,” *Sociological Research for a Dynamic World*, vol. 8, 2022, pp.1-11.

외에 인구학적, 사회적, 이념적 정체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낙태 이슈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당정체성과 더불어 종교, 인종, 젠더, 이념 등 보다 다양한 정체성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시사한다. 이는 정당이 낙태 이슈를 통해 기존 정당 지지자들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장을 공유하는 다양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 이슈로 낙태 이슈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중간선거는 미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낙태 이슈의 성격과 전략적 가능성 및 정치적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선거였다.

IV. 2022 중간선거와 낙태 이슈

1. 낙태 이슈를 둘러싼 양당의 전략

2022년 낙태 이슈는 그 어느 이슈보다도 양당의 차이가 뚜렷한 이슈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유권자 차원에서 낙태는 정당정체성 뿐 아니라 종교, 성별, 이념에 따라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슈이기도 하다. 또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은 이슈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낙태 이슈를 통해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조건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뉘스(Dobbs) 판결 이후 낙태 이슈가 미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자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를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공화당의 시도에 대한 국민투표(referendum)로 규정하고, 가능한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동원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기존 민주당 지지자 뿐 아니라 선택우선주의를 지지하는 무당파, 여성, 그리고 젊은층 유권자 동원에 총력을 기울였다.³¹⁾ 그러나 선거 한 달 전까지도 경제가 낙태에 비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조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 이슈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그룹 조사 등은 낙태가 무당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어, 민주당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슈였다.³²⁾

한편, 공화당은 낙태 찬성자가 반대자보다 많기 때문에 낙태가 캠페인의 중심 이슈가

31) Smith, Sarah, "How abortion law could still impact who wins US midterms," BBC News, November 6, 2022.

32) Schneider, Elena and Holly Otterbein, "'THE central issue': How the fall of Roe v. Wade shook the 2022 election," POLITICO, Dec. 19, 2022.

되는 것이 공화당에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가능한 한 낙태 이슈를 피해가려는 전략을 썼다.³³⁾ 공화당 후보들은 경제와 범죄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파 유권자들을 움직이고자 하였다. 이 유권자들이 범죄와 경제 이슈에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낙태 이슈에도 결집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었다.

양당의 전략 차이는 낙태 관련 광고의 양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광고 트래킹 회사인 AdImpact에 의하면, 2022년 민주당의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 광고 중 27%가 낙태 관련 광고인 반면,³⁴⁾ 공화당은 5%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 선거들의 낙태 관련 광고비로 3억 8,500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 공화당은 3,700만 달러 지출에 그쳤다.³⁵⁾

여론은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으로 보였다. 투표 당일 출구조사³⁶⁾ 결과에서도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25%(매우 만족 5%)에 그친 반면, 불만이 41%, 분노가 33%로 나타나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31%)로 인식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해결할 정당으로 과반수(54%)가 공화당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출구조사에서는 낙태 이슈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응답들이 관찰되었다. 낙태를 투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한 비율이 27%로 인플레이션을 선택한 응답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1%, 분노한다는 응답은 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낙태 문제를 더 잘 다룰 정당으로 53%가 민주당을, 42%가 공화당을 택해 인플레이션을 잘 다룰 정당에 대한 인식과 거의 반대로 나타났다.

2. 낙태 이슈가 투표 참여와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

1) 여성 유권자 동원 효과

앞서 언급했듯이, 낙태는 정파적인 이슈임과 동시에 다양한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낙태 이슈의 성격을 잘 활용하여 민주당 지지자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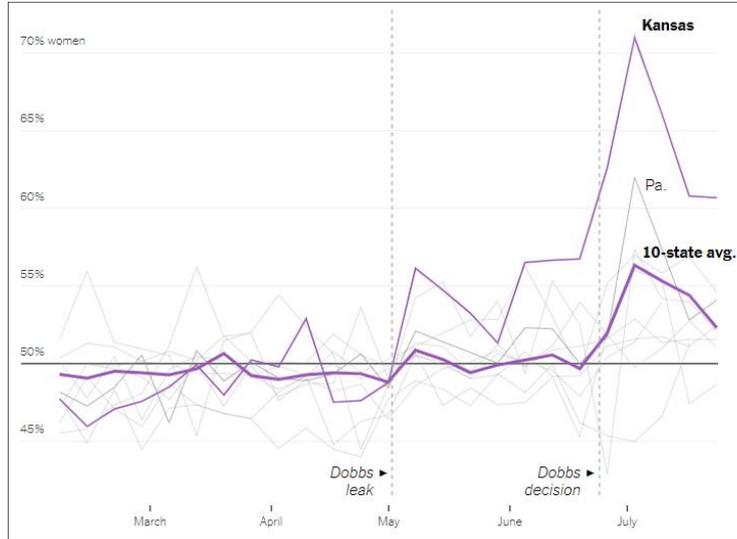
33) Smith, *op. cit.*

34) 2020년 민주당의 낙태 관련 광고는 전체 광고의 2%였다(Schneider and Otterbein, *op. cit.*).

35) *Ibid.*

36) 2022 Exit Polls, House Election, cnn.com; 출구조사 중 전국 단위의 응답(18,571명) 자료가 제공된 하원의원 선거 투표자 응답을 기준으로 함.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대 또는 분노하는 여성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New York Times, August 25, 2022

〈그림 2〉 대법원 판결 후 새로 투표등록한 여성 비율

〈표 1〉 대법원 판결 후 8월 중순까지 생애 첫 등록자 비율의 성별 차이

주	여성-남성 (%)
캔사스	40
아이다호	18
위스콘신	17
루이지애나	13
펜실베이니아	12
아칸소	12
오하이오	11
미주리	10
콜로라도	10
노스캐롤라이나	7
코네티컷	7

출처: 데이터 회사 Targetsmart의 CEO인 Tom Boiner, Statista에서 재인용.

출구조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투표보다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데이터 분석가 쇼어(Shor)는 “낙태 이슈가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다지 중요치 않은 중립적 이슈였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말한다.³⁷⁾

특히 낙태 이슈는 낙태제한을 반대하는 여성들을 투표소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2>와 <표 1>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주들에서 새로이 투표등록한 유권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8월에 낙태금지법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던 캔사스에서는 새로 등록된 유권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40%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낙태 이슈가 여성 유권자 동원의 기제로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2) 투표 행태에 미친 영향

<표 2>는 투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이슈와, 이 이슈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표 2> 투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이슈(투표 정당별 %)

	인플레이션	낙태	범죄	총기정책	이민
전체 유권자	31	27	11	11	10
각 이슈별 민주당 투표	28	76	41	60	25
각 이슈별 공화당 투표	71	23	57	37	73

출처: CNN/Edison Research Exit Polls, 2022.

인플레이션이 투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응답한 유권자들 중 71%는 공화당 후보에, 28%는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였으며, 낙태가 투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유권자들은 78%가 민주당 후보에, 23%가 공화당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투표 선택에서 낙태 이슈의 효과가 인플레이션 이슈 못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7) Gambino, Lauren, “How the fall of Roe shattered Republicans’ midterm dreams,” The Guardian, November 12, 2022.

〈표 3〉 투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이슈 (성별, 연령별 비율 %)

	인플레이션	낙태	범죄	총기정책	이민
전체 유권자	31	27	11	11	10
여성	28	33	10	10	10
남성	35	22	13	12	11
18~29세	21	44	13	9	7
30~44세	34	31	8	13	6
45~64세	33	24	12	10	12
65세 이상	32	33	13	12	12

출처: CNN/Edison Research Exit Polls, 2022; 연령별 비율은 Tufts University의 Center for Information &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에서 제공한 결과 사용.

특히, 출구조사 결과는 남녀 유권자 간, 그리고 젊은층과 다른 연령층 유권자 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에 의하면, 낙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한 여성은 33%인 반면, 남성은 22%에 불과했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한 남성은 35%인 반면 여성은 28%에 그쳤다. 젊은층 유권자들은 더욱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투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44%가 낙태를 선택했고, 인플레이션을 선택한 경우는 21%에 불과해 다른 세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연령별 이슈 선호의 차이는 그들의 투표 선택에도 반영되었다. 〈표 4〉에서 여성과 젊은층 유권자들은 남성 및 다른 세대에 비해 민주당에 투표한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젊은층 투표자들의 경우 30여 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³⁸⁾ 민주당이 승리했던 2020년 대선 때(62%)보다 더 높은 비율로 민주당에 투표하였다.

한편,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투표자 중 73%가 민주당에 투표한 반면, 낙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투표자 중에는 89%나 공화당에 투표하였다. 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하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공화당 후보에 투표했지만, 판결에 불만인 경우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는 과반에 못 미쳤다. 이 결과로부터,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은 반대자들보다 정당정체성이라는 정파적 동질성이 낮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대법

38) Booth, Ruby Belle, “The Abortion Election: How Youth Prioritized and Voted Based on Issues,” Center for Information &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CIRCLE), Tufts University, November 14, 2022.

원 판결에 분노를 표한 유권자들은 85%가 민주당을 지지하여 정파적으로 더 동질적인 투표자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 성, 연령, 낙태에 대한 의견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에 따른 투표 선택 (%)

	전체	성 별		연 령 별			
		여성	남성	18~29세	30~44세	45~64세	65세~
전체 유권자 중	100	52	48	12	21	39	28
민주당 투표자	48	53	42	63	51	44	43
공화당 투표자	50	45	56	35	47	54	55
	전체	낙태에 대한 의견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에 대한 의견			
		낙태 합법	낙태 불법	매우 만족	만족	불만	분노
전체 유권자 중	100	60	37	16	21	21	39
민주당 투표자	48	73	10	4	17	46	85
공화당 투표자	50	25	89	95	81	51	14

출처: CNN/Edison Research Exit Polls, 2022; 연령별 비율은 Tufts University의 Center for Information &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에서 제공한 출구조사 결과 사용³⁹⁾

18~29세의 젊은층에서는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표자들의 80%가 민주당에, 그리고 16%가 공화당에 투표하였으며, 낙태가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표자 중에는 89%가 공화당에, 그리고 8%가 민주당에 투표하였다.⁴⁰⁾ 이 세대 역시 투표 동질성에서 다른 세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는 있지만, 낙태 이슈를 가장 중요시한 유권자 집단인 만큼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투표한 비율은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다.

〈표 5〉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투표 참여와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성별, 연령별, 그리고 판결에 대한 의견별로 보여주고 있다. 19~49세 여성과 생애 첫 투표자, 젊은층에서 낙태 이슈가 투표 선택의 유일한 요인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투표자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분노하는 투표자 중 43%가 낙태 이슈를 투표 선택의 유일한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71%가 선택의 중요 요인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도 낙태 이슈는 이 분노하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39) Boothe, Rby Belle, "The bortion Election: How Youth Prioritized and Voted Based on Issues," Center for Information &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Tufts University, Nov. 14, 2022.

40) *Ibid.*

켰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중 63%에게 대법원 판결이 투표 참여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밖에도 낙태 이슈는 19~49세 여성과 생애 첫 투표자, 젊은층의 투표 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낙태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 뿐 아니라 여성 및 젊은층의 투표행태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대부분의 이슈가 정파적으로 배열된 미국 정치에서 이념과 성별, 세대, 종교 등이 독립적 영향력을 가지는 가치 기반 이슈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2024년 대선을 준비하는 미국 정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표 5〉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투표 참여와 선택에 미친 영향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이...		
	투표 선택의 유일한 요인이었다	투표 참여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전체 투표자	24	38	47
여성	29	43	53
남성	19	33	40
생애 첫 투표자	38	54	49
18~29세 투표자	34	52	53
18~49세 여성	34	51	55
대법원 판결에 분노	43	63	71
대법원 판결에 불만	16	31	41

출처: KFF/AP(Oct. 31- Nov. 8, 2022)⁴¹⁾

2. 낙태 이슈가 경합주 선거에 미친 영향

1) 낙태 이슈가 낙태권 관련 주민투표 실시 주들의 선거에 미친 영향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선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 영향은 개별 주 단위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표 6〉은 중간선거 시기에 낙태권 관련법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주들의 주민투표 및 주요 선거 결과이다. 8월에 주민투표가 있었던 캔사스 및 중간선거와 주민투표가 함께 치러졌던 5

41) Kaiser Family Foundation, "Analysis Reveals How Abortion Boosted Democratic Candidates in Tuesday's Midterm Election," November 11, 2022.

개 주에서 주민투표 결과는 모두 선택우선주의적 결과가 나왔다. 전통적 보수 주인 캔사스주와 몬태나주에서도 낙태권 폐기를 위한 시도는 큰 차이로 실패하였다. 이 6개 주에서 주민투표 결과가 중간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낙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중 캔사스와 미시건의 선거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표 6〉 중간선거 시기 낙태 관련 주민투표 실시 주의 주민투표 결과 및 선거 결과

주 (전통적 정당지지 성향)	주민투표 내용	주민투표 결과	주요 선거 결과
캔사스 (공화)	주 헌법에서 낙태권 폐기	반대 (찬41:반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민주당 주지사 Kelly 2.1%p 승리 • 민주당 Davids 하원의원 3선 성공 • 대법원 판사 7명 중 6명 유지 (공화당의 5명 교체 시도 실패)
캘리포니아 (민주)	주 헌법에 낙태권 확대 명시	찬성 (찬67:반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현직 주지사 및 상원의원 승리 • 주의회 민주당이 상하원 각각 1석 및 2석을 더 얻어 절대다수 유지
켄터키 (공화)	주 헌법에서 낙태권 폐기	반대 (찬48:반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낙태 반대론자 주 대법관 후보들은 낙선 • 주의회는 공화당 절대다수 유지 • 주지사 선거 없이 현직은 민주당 주지사
미시건 (경합)	주 헌법에 낙태권 명시	찬성 (찬57:반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 • 주의회 40년 만에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차지
몬태나 (공화)	낙태 제한 강화 조항 삽입	반대 (찬47:반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사 선거 없이 현직 공화당 주지사 • 주의회도 공화당이 100여년 만에 절대다수 형성
버몬트 (민주)	주 헌법에 낙태권 명시	찬성 (찬77:반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공화당 주지사 Scott 약 47%p 승리 • 상원은 민주당 Welch가 약 40%p 승리 • 버몬트의 역대 중간선거 최고 투표율 (57%)

출처: BALLOTPEdia, AP, CNN 등 결과 참조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였던 캔사스주에서는 주 법무장관 경력의 공화당 슈미트(Schmidt) 후보의 안정적 승리가 예측되었지만 8월 낙태권 주민투표 이후 낙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켈리(Kelly) 주지사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게 되었고⁴²⁾ 결국 켈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또 약세로 평가받던 캔사스 유일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데이비스(Davids)는 민주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공화당 앳킨스(Adkins)의 강한 공격에 맞서 앳킨스를 ‘예외 없는 낙태금지’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로 밀어부치면서 12%포인트 승리의 발

42) Hanna, John, “Kansas governor’s race is close after abortion upheaval,” AP, Nov. 5, 2022.

판을 마련하였다.⁴³⁾ 더불어, 캔사스에서 주 대법원 판사 다수에 대해 교체를 원했던 공화당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전원이 교체 없이 유지되었던 것도 낙태 이슈와 관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⁴⁴⁾

미시건주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로 평가된다. 출구조사에 의하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낙태라고 응답한 미시건 투표자들은 45%에 달한다(전국은 27%). 전국 31%의 투표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던 인플레이션을 선택한 미시건 투표자는 28%에 불과했다.

현직 주지사인 위트머(Whitmer)는 낙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6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미시건의 1931년 낙태제한법의 효력이 부활하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하였다. 강한 낙태 반대주의자인 공화당의 디슨(Dixon)의 낙태 관련 강성 발언을 중심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위트머는 53.5%(디슨 43.9%)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낙태권 문제를 직접 다루는 주 법무장관 선거 역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였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여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주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었다.⁴⁵⁾

연방 상원 선거가 없었던 미시건에서는 하원 선거에서도 낙태가 핵심 이슈였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하원 선거구 중 하나인 제7선거구에 출마한 현직 민주당 슬로킨(Slotkin) 후보는 선거구 재확정으로 공화당 우위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낙태를 캠페인 전면에 내세웠다. 미시건 1931년법에 대한 법원의 중지 결정이 있었던 9월에는 하원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 제한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9월에 슬로킨은 약 18% 포인트의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보였는데, 슬로킨 본인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낙태 이슈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슬로킨의 승리에는 낙태 이슈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⁴⁶⁾

이 외에도, 버몬트주의 경우, 이번 중간선거가 버몬트 중간선거 역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게 된 데는 낙태 이슈가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⁷⁾

43) Desrochers, Daniel, "How much did abortion rights help Davids win in Kansas?" The Kansas City Star, Nov. 10, 2022.

44) Mipro, Rachel, "Kansas Supreme Court justices hang onto seats in retention vote," Kansas Reflection, Nov. 9, 2022.

45) Perkins, "How Michigan Democrats took control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The Guardian, Nov. 17, 2022.

46) Noor, Poppy, "Michigan Democrat's lead shows abortion may be the issue that decides midterm races," The Guardian, Nov. 1, 2022.

47) Mearhoff, Sarah and Erin Petenko, "Vermont sees record high midterm turnout in historic election year," VT Digger, Nov. 15, 2022

〈표 7〉의 KFF/AP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민투표가 있었던 주들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투표 선택의 유일한 요인이었다’는 비율과 ‘투표 참여 및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주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은 18~49세 여성의 동원에 매우 효과적인 이슈였으며, 나아가 공화당 정체성의 여성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투표 참여와 선택에 미친 영향 (주민투표 실시 3개 주)

투표자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이...											
	투표 선택의 유일한 요인				투표 참여의 중요 요인				후보자 선택의 중요 요인			
	전국	미시건	버몬트	캘리포니아	전국	미시건	버몬트	캘리포니아	전국	미시건	버몬트	캘리포니아
전체 투표자	24	29	26	27	38	43	37	44	47	52	54	50
18~49세 여성	34	37	30	35	52	55	51	55	55	61	62	54
공화당 정체성 여성	10	18	12	20	-	32	22	30	-	42	33	34

출처: KFF/AP (Oct. 31- Nov. 8, 2022)⁴⁸⁾

2) 낙태 이슈가 주요 경합주들의 선거에 미친 영향

2021년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과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주민투표 실시 주 뿐 아니라 많은 주에서 낙태 제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모두 낙태권이 주요 이슈였던 주들이다.⁴⁹⁾ 〈표 8〉은 이 중 앞서 논의한 미시건주를 제외한 5개 주의 낙태 관련법 상황과 주요 선거 결과이다.

〈표 8〉의 5개 주는 모두 상원 선거에서 접전을 벌인 주들로서, 4개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였다. 또 미시건주를 포함한 6개 주 중 4개 주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되었다.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낙태 이슈의 영향이 컸다. 〈표 9〉에서 보이듯이, 많은 경합주 투표자들이 낙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고려하였다. 특히 민주당이 크게 선전한 애리조나,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는 낙태를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

48) Kaiser Family Foundation, “KFF/AP VoteCast: Health Care In The 2022 Midterm Election,” Nov. 14, 2022.

49) Cohen, Ethan, Melissa Holzberg DePalo, Priya Krishnakumar and Will Mullery, “Six states to watch for the 2022 midterms,” CNN, Nov. 5, 2022.

다. 그 중 미시건과 펜실베이니아 투표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낙태를 훨씬 중요한 이슈로 고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경합주의 낙태 이슈와 주요 선거 결과

주	낙태 관련 이슈	주요 선거 결과
애리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15주까지 낙태 합법 • 1864 낙태 금지법은 10월 2심 법원 판결에 의해 2023년까지 효력 정지 중이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뀔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사 선거: 낙태법 폐기 약속한 민주당 Hobbs(50.3%)가 낙태법 찬성하는 현직 공화당 Lake(49.6%)에게 0.7%p 차이로 신승 • 상원 선거: 민주당 Kelly(51.4%)가 공화당 Masters(46.5%)에 승리 • 주 법무장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약 500표 차이로 승리(50.01% : 49.99%) • 주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2개 의석 차이로 근소한 다수 유지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6주까지만 낙태 합법 • 다양한 낙태제한 규정 존재 • 공화당 주지사 및 의회에서 낙태 전면 금지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사 선거: 현재의 낙태제한법에 서명한 현직 Kemp 주지사(53.8%)가 낙태제한법 반대자 민주당 Abrams(45.9%)에 승리 • 상원 선거: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Warnock(51.6%)가 공화당 Walker(48.6%)에 승리(1차투표에서는 49.4% 대 48.5%) • 주 법무장관 선거: 낙태제한법 강한 찬성자 공화당 현직 장관이 5.3%p 차이로 승리 • 주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유지
네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에 주민투표로 임신 24주까지 낙태 합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사 선거: 낙태금지를 위한 투쟁을 공언한 공화당 Lombardo(48.8%)가 현직 민주당 Sisolak(47.4%)에 승리 • 상원 선거: 현직 민주당 Cortez Masto(48.9%)가 공화당 Laxalt(48.0%)에 신승 • 주 법무장관은 민주당이 승리 • 주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각각 2석, 3석씩을 더 얻어 다수당 유지
펜실베이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24주까지 낙태 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사 선거: 낙태권 지지자 민주당 Shapiro(56.5%)가 낙태금지법을 약속한 공화당 Mastriano(41.7%)에 승리 • 상원 선거: 민주당 Fetterman(51.2%)이 공화당 Oz(46.3%)에 승리 • 주의회 선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 하원은 민주당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승리(다수당 논쟁 중)
위스콘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49년 낙태금지법이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효력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사 선거: 낙태금지법 비토를 약속한 민주당 Evers(51.2%)가 낙태금지법을 강조한 공화당 Michaels(47.8%)에 승리 • 상원 선거: 공화당 재선 의원 Johnson(50.5%)이 민주당 Barnes(49.5%)에 신승 • 주 법무장관 선거: 현직 민주당 장관이 1.4%p 차이로 승리 • 주의회 선거: 상원 공화당이 절대다수 확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확보했으나 절대다수에는 실패

출처: BALLOTPEDIA; AP, CNN 등 결과 참조

〈표 9〉 출구조사에서 경합주의 '가장 중요한 이슈' 응답 비율(%)

	전국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인플레이션	31	36	37	28	36	28	34
낙태	27	32	26	45	28	37	31
범죄	11	6	13	6	11	12	12

출처: CNN/Edison Research Exit Polls, 2022

낙태가 투표 선택의 중요 이슈였던 경합주 선거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연방대법원 판결이 투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 (%)

주	주 전체 유권자	주지사 선거		상원 선거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공화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공화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애리조나	48	65	32	64	31
조지아	50	68	23	68	32
네바다	43	67	14	67	20
펜실베이니아	48	64	19	68	28

출처: KFF/AP (Oct. 31- Nov. 8, 2022)⁵⁰⁾

먼저, 애리조나주의 중간선거에서 낙태 문제는 민주당 후보들의 가장 핵심적인 캠페인 이슈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당선 후 1864년 낙태금지법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주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에는 근소한 차이로 실패했지만, 주지사 자리를 탈환하였고, 연방 상원 선거에서도 승리하였으며, 특히 1864년 낙태금지법이 부활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 법무장관 선거에서 약 500표 차이로 공화당에 승리하였다.⁵¹⁾

조지아주에서는 임신 6주까지로 낙태를 제한한 현재의 낙태법에 서명한 현직 주지사와

50) Kaiser Family Foundation, Nov. 14, 2022, *op. cit.*

51) Washington Post, "Here's how abortion access fared in the midterm elections in nine states," Dec. 5, 2022.

이 법을 비판하는 민주당 도전자의 치열한 공방전이 TV 토론에서도 길게 전개될 정도로 낙태가 주요 이슈였다.⁵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들에서는 조지아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높아진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⁵³⁾

그러나 결선투표까지 갔던 조지아 상원 선거는 말 그대로 낙태의 정치였다는 평가이다. 결선투표 캠페인에서 민주당 후보 워녹(Warnock)은 낙태 이슈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민주당 지지 집단인 조지아 아너(Georgia Honor)는 공화당 후보 워커(Walker)가 전국적으로 낙태의 ‘예외없는 금지’를 원하고 있다는 광고를 공격적으로 송출하였다. 반면, 워커와 공화당은 낙태 이슈를 최소화하고 다른 이슈를 부각시키는 전략과 함께, 워녹을 무제한의 낙태권을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라고 공격하였다.⁵⁴⁾ 이러한 캠페인은 낙태를 상원 결선투표의 중심 이슈로 만들어 워녹의 승리에 중요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바다주는 경합주들 중 현직 민주당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가장 약세로 평가받은 지역 이면서,⁵⁵⁾ 동시에 민주당이 낙태 관련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주 중 하나이다. 공화당이 약 140만 달러를 낙태 광고에 지출하는 동안 민주당은 3,600만 달러 이상을 낙태 관련 광고비로 지출했다.⁵⁶⁾ 특히 현직 민주당 상원의원 코테즈 매스토(Cortez Masto)는 낙태 관련 광고를 다국어로 송출하고, 언론 컨퍼런스, 연설, 유권자 미팅 등 모든 곳에서 낙태 이슈를 강조하였다.⁵⁷⁾ 한 평론가는 “낙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코테즈 매스토가 낙태 이슈를 강조하는 도박을 하고 있다”⁵⁸⁾고 표현할 정도였다. 코테즈 매스토의 낙태 광고는 락살트가 대법원 결정을 칭송했으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낙태가 금지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 법무장관으로서 낙태제한 의견서에 서명했던 락살트는 광고에서 낙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 경제와 범죄 문제에서의 민주당 실정을 강조하였다.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락살트의 승리가

52) Amy, Jeff and Bill Barrow, “Kemp, Abrams argue abortion, voting in Ga. governor debate,” AP, Oct. 31, 2022

53) Wooten, Nick, “11Alive poll : How much do Georgia voters care about abortion ahead of elections?” 11Alive, Nov. 4, 2022.

54) Kapur, Sahil, “Georgia Senate runoff tests the staying power of abortion in American elections,” NBC NEWS, Dec. 1, 2022.

55) Cohen et al. *op. cit.*

56) Ewall-Wice, Sarah and Caitlin Huey-Burns, “Abortion access proved to be a powerful force in 2022 midterm elections,” CBS News, Nov. 11, 2022.

57) Potts, Monica, “Control Of The Senate Could Rest On Abortion And Inflation In Nevada,” FiveThirtyEight, Nov. 6, 2022.

58) *Ibid.*

예측되었음에도 결국 코테즈 매스토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공격적인 낙태 중심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⁹⁾

다음으로, 펜실베이니아주는 미시건주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낙태를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로 간주한 주이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공화당이 주의회의 안정적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주지사마저 공화당에서 나온다면 현재의 낙태권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민주당 캠페인과 맞물려 증폭된 것으로 분석된다.⁶⁰⁾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샤피로(Shapiro)는 주 법무장관으로 다른 주들의 낙태제한 반대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반면, 극단적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는 공화당 매스트리아노(Mastriano)는 주 상원의원으로서 낙태금지 입법화를 주장해 왔다.⁶¹⁾ 샤피로는 그의 첫 번째 네거티브 광고로 매스트리아노가 ‘예외 없는 낙태금지’를 지지했다는 내용을 송출하였다.⁶²⁾

상원 민주당 후보 페터만(Fetterman)을 지지하는 슈퍼팩(super PAC) 역시 공화당 후보 오즈(Oz)의 낙태 입장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오즈는 이에 대한 반박 대신 경제와 범죄 문제를 부각시키는 광고전략을 채택하였지만,⁶³⁾ 오즈가 TV토론에서 낙태 정책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페터만은 이를 비판하는 광고를 즉각 내보냈으며, 이후 낙태 이슈는 펜실베이니아 선거에서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⁶⁴⁾ 낙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지사 선거와 연방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주의회 선거에서도 2020년에 비해 상원에서는 1석, 하원에서는 무려 13석을 더 얻어 2010년 이래 처음으로 주 하원에서 승리를 차지하였다.⁶⁵⁾

마지막으로, 위스콘신주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가 가장 비슷한 비율로 나뉘어 있는 주로,⁶⁶⁾ 주지사 및 상원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지역이다. 민주당은 위스콘신의 모든 선거에서 낙태를 캠페인의 중심 이슈로 만들고자 하였다.⁶⁷⁾ 주지사 선거에서 현직 민주당 에버스(Evers)는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심장박동법’에 대해

59) *Ibid.*

60) Ewall-Wice and Huey-Burns, *op. cit.*

61) Washington Post, *op. cit.*

62) Schneider and Otterbein, *op. cit.*

63) *Ibid.*

64) Cillizza, Chris, “Dr. Oz’s awful answer on abortion,” CNN, Oct. 26, 2022.

65) 102 대 101로 민주당이 승리하였으나, 민주당은 후보 중 1명이 투표 전에 사망하였고, 다른 2명은 다른 직으로 가기 위해 사퇴함으로써 3명의 궤석이 나와 사실상 공화당이 다수가 되었다. 다만, 어느 당을 다수당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아직 논쟁 중이다.

66) Cohen et al., *op. cit.*

67) Bradner, Eric, Omar Jimenez and Donald Judd, “Wisconsin Democrats attempt to elevate abortion rights issue in competitive Senate and governor’s races,” CNN, Oct. 4, 2022.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고, 6월에 효력이 부활한 1849년법에 대해 주민이 결정권을 갖도록 법을 바꿀 것을 주의회에 요청하였다. 도전자인 공화당 미헬스(Michels)는 캠페인 과정에서 낙태금지에 대한 이전의 입장을 완화한 입장을 표명했지만,⁶⁸⁾ 에버스는 미헬스의 과거 입장을 강조하는 광고를 송출하면서 공격에 나섰다. 현직 에버스 주지사가 경제와 범죄 관련 공격을 벗어나기 위해 낙태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반면, 공화당 후보는 바이든의 경제정책 및 위스콘신에서의 범죄율의 악화를 강조하는 캠페인에 집중하였고 가능한 한 낙태 이슈를 언급하지 않는 전략을 썼다.⁶⁹⁾ 결국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에버스가 승리하였고, 상원 선거에서는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존슨(Johnson)이 민주당 후보에 1%포인트 차이로 어렵게 승리하였다.

위스콘신에서 낙태 이슈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선거는 주 법무장관 선거였다. 현직 민주당 카울(Kaul)은 2019년 취임 이후 1849년 낙태금지법을 폐지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소송들에도 참여하였다. 공화당의 토니(Toney) 후보는 1849년법에 찬성하며, 카울의 소송을 기각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⁷⁰⁾ 결국 접전 끝에 카울이 1.4%포인트 차이로 승리하였다.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영향은 주별로, 또 단위 선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들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범죄 등 불리한 이슈 대신 가능한 한 낙태 이슈를 앞에 내세우고자 했던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실정을 중심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경합주들에서는 이러한 두 전략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특히,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후보들이 낙태 이슈를 전면으로 내세운 지역일수록 낙태 이슈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당은 다양한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낙태 이슈를 잘 활용하여 여성과 젊은층 동원에 성공하였고, 낙태권에 대한 미래의 불안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통해 선택우선주의자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68) Washington Post, *op. cit.*

69) Bradner et al., *op. cit.*

70) Richmond, Todd, "Democrat Kaul wins 2nd term as Wisconsin attorney general," AP, Nov. 10, 2022.

V. 결론

1970년대부터 미국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낙태 이슈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의 뉘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판결 이후 미국 사회 갈등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들에서는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시도하였고,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수많은 유권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노와 유권자들의 선택우선주의 경향은 민주당이 낙태 이슈를 통해 유권자를 동원하고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경합주에서의 민주당 선전에 낙태 이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의 핵심적인 중요성은 무엇보다 이 이슈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약세였을 지역들에서 접전의 양상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 한 이슈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태 이슈를 앞세운 민주당이 약세에서 접전으로 그리고 승리까지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낙태 이슈가 정파적으로만 나뉘어 있는 이슈가 아니라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에 호소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권과 관련해 각 주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래의 상황에 대해 투표하게 만드는 이슈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 상황이 선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없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여성과 젊은층 및 선택우선주의자들이 미래를 위해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한 반면, 공화당은 전통적인 회고적 이슈를 기반으로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는 정파적 전략 중심의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정치 전문가들 뿐 아니라 많은 공화당 전략가들도 낙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려 한 민주당의 전략을 무시하고 경제와 범죄 이슈만 강조한 공화당이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고 말한다.⁷¹⁾ 특히 트럼프의 영향력과 더해져서 낙태 이슈는 공화당 후보들을 극단적인 정치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공화당 지지자 및 무당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조사에서 한 참가자는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여성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특히 “극단적 후보로 인식됨으로써 공화당 후보들은 생명우선주의 여성들에게까지 외면당했다”고 지적하였다.⁷²⁾ 공화당의 극단적 낙태금지론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캠페인 전략에 트럼프의 영향이 더해져서 공화당 후보들은 극

71) Schneider and Otterbein, *op. cit.*

72) *Ibid.*

단주의자로 인식되었고 이것이 여성과 젊은층을 민주당 투표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출구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태 이슈가 이번 중간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 상세한 선거조사 자료가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방법과 결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 유권자 단위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2022년의 낙태 이슈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미국 선거와 정치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집권당에 매우 불리한 경제 상황에서 집권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던 중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기대했던 만큼의 권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이고 주목받을 만한 선거였다. 이번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가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2024년의 미국 선거 정치에 미칠 영향은 지대해 보인다.⁷³⁾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미국 정치의 핵심 이슈인 낙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번 선거로 인해 낙태를 제한·금지하려는 보수주의자 및 공화당의 시도가 일단은 대부분 무산되었지만, 향후 끊임없는 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 주 법무장관, 주 대법원 판사 등이 소속 정당이나 성향에서 다르게 구성된 애리조나, 켄사스, 켄터키, 몬태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네브래스카 등의 주들은 낙태권 관련한 즉각적인 소송이 예상되는 주들이다.⁷⁴⁾

향후 전개될 지속적인 낙태권 소송과 낙태 찬반 운동은 낙태 이슈를 강력한 정치적 이슈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024년까지 낙태가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경우, 민주당은 2024년 대선에서 여성과 젊은층 유권자를 동원하는 데 유리한 이슈를 점유하게 된다. 강한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낙태 이슈는 정당 정교성을 뛰어 넘어 여성과 젊은층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이 이슈를 중심에 두고 싶어 할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를 의도적으로 뒤로 하고 경제 이슈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받은 공화당은 2024년을 앞두고 낙태 이슈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정책으로 민주당과 경쟁할지 논의

73) Galston, William A., "What do the 2022 midterms mean for 2024?" Nov. 9, 2022.

74) McCann, Allison, Amy Schoenfeld Walker, John-Michael Murphy and Sarah Cahalan, "Where the Midterms Mattered Most for Abortion Access," New York Times, Nov. 21, 2022.

와 고민을 시작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나달숙, “미국에서의 낙태에 관한 법적 논쟁,”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2008.
- 연합뉴스, “미 대법 “텍사스 낙태제한법 시행 유지”...바이든 “깊은 우려,” 2021.12.11.
-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Ideological Realignment in the U.S. Electorate,” *Journal of Politics*, vol. 60, no. 3, 1998.
-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Is Polarization a Myth?”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2, 2008.
- Adamczyk, Amy, Chynrye Kim and Leevia Dillon, “Examining Public Opinion about Abortion: A Mixed Methods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ver the Last 15 Years,” *Sociological Inquiry*, vol. 90, no. 4, 2020.
- Adams, Greg D., “Abortion: Evidence of an Issue Evolu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3, 1997.
- Amy, Jeff and Bill Barrow, “Kemp, Abrams argue abortion, voting in Ga. governor debate,” AP, Oct. 31, 2022
- Andaya, Elise, “‘I’M BUILDING A WALL AROUND MY UERUS’: Abortion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Othering in Trump’s America,” *Cultural Anthropology*, vol. 34, Issue 1.
- BALLOTPEdia, <https://ballotpedia.org/>
- Bartkowski, John P., Aida I. Ramos-Wada, Chris G. Ellison and Gabriel A. Acevedo, “Faith, Race-Ethnicity, and Public Policy Preferences: Religious Schemas and Abortion Attitudes among US Latino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51, no. 2, 2012.
- Blazina, Carrie, “Key Facts about the abortion debate in America,” Pew Research Center, July 15, 2022.
- Booth, Ruby Belle, “The Abortion Election: How Youth Proiritized and Voted Based on Issues,” Center for Information &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CIRCLE), Tufts University, November 14, 2022.
- Bradner, Eric, Omar Jimenez and Donald Judd, “Wisconsin Democrats attempt to elevate abortion rights issue in competitive Senate and governor’s races,” CNN, Oct. 4, 2022.
- Carmines, Edward G. and James A. Stimson, *Issue Evolution: Rac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Carmines, Edward G., Jessica C. Gerrity and Michael W. Wagner, “How Abortion Became a Parisan Issue?: Media Coverage of the Interest Group-Political Party Connection,” *Politics & Policy*, vol. 38, no. 6, 2010.
- Carmon, Irin, “2016 Debate: On Abortion, Trump and Clinton Give Passionate Answers,” NBC News, Oct. 21, 2016.
- Castle, Jeremiah J. and Kyla K. Stepp, “Partisanship, Religion, and Issue Polarization in the United

- States: A Reassessment, *Political Behavior*, vol. 43, 2021.
- Cillizza, Chris, “Dr. Oz’s awful answer on abortion,” CNN, Oct. 26, 2022.
- Cohen, Ethan, Melissa Holzberg DePalo, Priya Krishnakumar and Will Mullery, “Six states to watch for the 2022 midterms,” CNN, Nov. 5, 2022.
- CNN/Edison Research Exit Polls, 2022.
- de Vogue, Ariane, Tierney Sneed, Chandelis Duster and Devan Cole,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CNN, June 24, 2022.
- Desrochers, Daniel, “How much did abortion rights help Davids win in Kansas?” *The Kansas City Star*, Nov. 10, 2022.
- DiMaggio, Paul, John Evans and Bethany Bryson, “Have Americans’ Social Attitudes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2, no. 3, 1996.
- Elliot, Debbie and Laurel Wamsley, “Alabama Governor Signs Abortion Ban Into Law,” NPR News, May 14, 2019.
- Evans, John H., “Polarization in Abortion Attitudes in U.S. Religious Traditions, 1972~1998,” *Sociological Forum*, no. 17, 2002.
- Ewall-Wice, Sarah and Caitlin Huey-Burns, “Abortion access proved to be a powerful force in 2022 midterm elections,” CBS News, Nov. 11, 2022.
- Fiorina, Morris, P., *Unstable Majorities: Polarization, Party Sorting, and Political Stalemate*.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ress, 2017.
-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Second Edition, Pearson Longman, 2006.
-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Misconceptions and misreadings,”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2, 2008.
- Galston, William A., “What do the 2022 midterms mean for 2024?” Nov. 9, 2022.
- Gambino, Lauren, “How the fall of *Roe* shattered Republicans’ midterm dreams,” *The Guardian*, November 12, 2022.
- Hanna, John, “Kansas governor’s race is close after abortion upheaval,” AP, Nov. 5, 2022.
- Hoffman, John P. and Alan S. Miller,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Among Religious Groups: Convergence and Divergence over Tim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36, 1997.
- Hout, Michael, Stuart Perrett and Sarah K. Cowan, “Stasis and Sorting of Americans’ Abortion Opinions: Political Polarization Added to Religious and Other Differences,” *Sociological Research for a Dynamic World*, vol. 8, 2022.
- Hunter, James Davison,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1.
- JUSTIA, US Supreme Court,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
- Kapur, Sahil, “Georgia Senate runoff tests the staying power of abortion in American elections,” NBC NEWS, Dec. 1, 2022.
- Kaiser Family Foundation, “Analysis Reveals How Abortion Boosted Democratic Candidates in

- Tuesday's Midterm Election," November 11, 2022.
- Kaiser Family Foundation, "KFF/AP VoteCast: Health Care In The 2022 Midterm Election," Nov. 14, 2022.
- McCann, Allison, Amy Schoenfeld Walker, John-Michael Murphy and Sarah Cahalan, "Where the Midterms Mattered Most for Abortion Access," New York Times, Nov. 21, 2022.
- Mearhoff, Sarah and Erin Petenko, "Vermont sees record high midterm turnout in historic election year," VTDigger, Nov. 15, 2022
- Mipro, Rachel, "Kansas Supreme Court justices hang onto seats in retention vote," Kansas Reflection, Nov. 9, 2022.
- Mouw, Ted and Michael E. Sobel, "Culture Wars and Opinion Polarization: The Case of Abor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6, no. 4, 2001.
- Najmabadi, Shannon, "Gov. Greg Abbott signs into law one of nation's strictest abortion measures, banning procedure as early as six weeks into a pregnancy," The Texas Tribune, May 19, 2021.
- Noor, Poppy, "Michigan Democrat's lead shows abortion may be the issue that decides midterm races," The Guardian, Nov. 1, 2022
- Perkins, "How Michigan Democrats took control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The Guardian, Nov. 17, 2022.
- Planned Parenthood <https://www.plannedparenthoodaction.org/issues/abortion/roe-v-wade/whole-womans-health-v-hellerstedt>
- Potts, Monica, "Control Of The Senate Could Rest On Abortion And Inflation In Nevada," FiveThirtyEight, Nov. 6, 2022.
- Richmond, Todd, "Democrat Kaul wins 2nd term as Wisconsin attorney general," AP, Nov. 10, 2022.
- Schneider, Elena and Holly Otterbein, "'THE central issue': How the fall of Roe v. Wade shook the 2022 election," POLITICO, Dec. 19, 2022.
- Smith, Sarah, "How abortion law could still impact who wins US midterms," BBC News, November 6, 2022.
- Washington Post, "Here's how abortion access fared in the midterm elections in nine states," Dec. 5, 2022.
- Wooten, Nick, "11Alive poll : How much do Georgia voters care about abortion ahead of elections?" 11Alive, Nov. 4, 2022.

【 Abstract 】

Abortion Issue and 2022 U.S. Midterm Elections

Lee, So Young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abortion issue played a role in the unexpected outcome in the 2022 U.S. midterm elections. First, it investigates how the abortion issue has been politicized based on historical Supreme Court rulings, and how the politicized issue has affected U.S. politics. Then, it examines the effect of the abortion issue on voter behavior and the election results in key competitive states in 2022. The findings of this study exhibits that Democrats have succeeded in getting female and young voters out to the polls and gaining supports from those voters as well as most of Democratic identifiers and liberals, particularly in competitive states, by bringing to the forefront the abortion issue that is related to the multiple identities of voters. On the other hand, the study insists that Republicans in 2022 did not have proper strategies in handling the campaign issues as they depended on partisan strategies based on retrospective issues while hiding and ignoring the abortion issue.

Key Words : 2022 U.S. midterm elections, Abortion issue, Supreme Court's ruling on abortion, Races in competitive states in 2022

• 논문투고일 : 2023년 1월 13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2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2월 14일

